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완성된 뒤에 뼈라도 짝아
별듯이 끼어드는 암채는 없어야겠고 다소 뜻이
맞지않는다면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여 서로가
존보씩만 양보하면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

불태우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훗날 모아두었
던 힘을 더욱 더 필요하게 쓰기 위하여 자, 우리
리모두 따뜻한 손 마주잡고 83년 출발을 첫걸
음부터 힘차게 나아가자.

양계인들이 협회를 살찌우는 해 협회가 양계인을 배부르게 하는 해

장 지 현
(농수산신보 기자)



癸亥年 새해아침. 양계업계를 선도하는 귀 협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지난 한해도 양계업은 큰 시련을 겪은 한해
이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간간히 피해를 주는 I
LT 때문이라 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양계
업계는 전에 없는 단결을 보였었고 협회 또한
전 임직원이 양축가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양축가는 물론 관련업체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양계인의 전문지 「월간양계」도 갖가지
양계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층으로 다
뤄 많은 양계 관련인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고 본다. 특히 양계산업의 계열화 등에 관한 기
사는 정책당국에서도 많은 참고사항이 됐을 것
으로 생각되며, 양계업의 생산기술에서 유통,
판매, 방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는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항상 불
안한 가운데 계란을 생산하고 육계를 사육하는
양축가들에겐 더없이 설득력을 지녔고 정책당
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과제로 인
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돼지해의 새해를 맞는 이 아침에 지난

해 못다이룬 일, 귀협회가 풀어야 할 일들을 계
획대로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밀고나갈 것을
기대하며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코자 한다.

누구든 양계업에 대한 문제를 떠올릴 때 가
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대한양계협회」일 것이
다.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나 양계
인들의 권익을 위해 건의할 곳을 찾을 때나 농
수산부 정책당국을 찾기보다는 협회를 찾는 것
이 당연하다고 보아야겠다.

이는 양계협회가 생산자 단체이고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밀
접하고 친근감을 준다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가 회원을 위해 혹은 양계인들을
위해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에 뚜렷한 것이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흡한
양계산물 홍보가 그것이며 미미한 협회 활성화
가 그것이었을 것이다.

물론 「협회 활성화」같은 것은 당국의 뒷받침
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이
러한 당국의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생산자들
의 권익옹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협회

가 전 양계인들의 권익을 위해 뚜렷한 방향과 이에따른 의욕을 보일 때 당국이 보는 각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계란 GP 센터의 설치라든가 양계업의 기반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의 점성소 이전, 확대 방안 등 외에도 양계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협회가 전 양계인들의 힘을 합하는데 주력 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값진 것이 되고 양계 산업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의 미해결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양계」도 지령을 더해 오면서 양계 전문지로 그 기능을 다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지가 미처 손을 못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성 있게 실어 명실공히 양계업을 선도

하는 전문지로 커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양계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운 해인 만큼 양계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가 된 것 같다.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는 협회가 만들어 주는 것도 당국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양계인이 힘을 합하고 모이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는 것이다.

지난해 ILT 피해만을 보더라도 양계인 스스로가 피해를 자초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새해에는 양계인들이 협회를 살찌우는 해, 협회가 양계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당국에서도 이제 양계업을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보다 등한시 하는 정책은 없기를 바란다.

쇠고기 편중 소비성향을 닭고기로 전환시키는 정점의 해로

박 왕 근
(우성양행(주) 영업부)



다사다난했던 지난 임술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인 여러분의 가내에 신의 가호와 섭리가 함께 계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빌며 아울러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양축가 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몇가지의 바램을 적어 볼까 한다.

첫째, 올해는 우리 전 양계인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하여 축산업의 대명제 하에서 양계업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생산조절을 잘 하여 경기의 파동없는 안정된 생활의 수축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양계산업의 번창을 이룩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정진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면 한다.

둘째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식생활 개선으로 육류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쇠고